朝鮮日報 夕刊 二十四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廣田內閣總辭職 超然內閣出現?

一

昨二十三日 午後 廣田內閣은 마츰내 總辭職을 斷行하얏다。廿一日 再開議會劈頭에 政黨과 軍部가 正面衝突을하야 陸軍은 解散을 斷行할것을 主張하얏스나 政黨出身의 閣僚들이 反對하얏기 때문에 于先二日間의 停會를 奏請하고 善後策을 講究하기로 되엇든바 陸軍은 어데까지든지 解散을 斷行하기를 主張하야 二十二日閣議는 解散을 決定하고 二十三日에 奏請하기로 되엇섯다。그런데 이리해서는 對外的으로 非常時를 압둔 日本의 前途에 憂慮할 點이 잇다하야 永野海相이 政黨閣僚를 往來하며 斡旋한 結果 政府와 政黨間의 妥協이 成立될듯이 傳하더니 陸軍이 끗까지 解散을 主張하고 寺內陸相은 單獨으로 辭表를 提出햇스므로 二十三日 午後 臨時閣議는 마친내 閣內不統一로 總辭職을 決定하고 斷行한것이다。

二

廣田內閣이 今期議會에 危機에 逢着하리라 한것은 미리부터 豫想하든바다。왜그러냐하면 二、二六事件의 뒤를 바더 成立된 廣田內閣은 庶政一新을目標로 하얏기 때문에 軍規肅淸、國防充實、國民生活安定、外交刷新等 重大한 使命을 가젓든것이다。그리하야 이것을 實行하기 위하야는 未曾有의 財政膨脹을 要하고 既成政黨의 意思와 背馳되는 外交的 行政的手段을 要한다。그런데 既成政黨은 이것을 全的으로 承認치안코 이에 反對 又는 修正을加하라하나니 昨年 五月에 開催된 特別議會에서의 政黨의 態度는 그것을 證明하고 남어지가 잇다。今番 議會도 軍部를 牽制하야 某程度로 外交上失敗의 責任을 뭇고、豫算에 잇서서도 修正을 加하라한것이 마친내 濱田國松가튼 이의 爆彈的 攻擊演說로 나타나 軍部를 極度로 刺戟하야 마친내 解散과 總辭職의 兩極에서 헤메다가 內閣不統一로 總辭職을 斷行하게 된것이 아니냐。

三

이와가티 廣田內閣이 挫折한 것은 政黨과 軍部의 正面衝突에 依함인즉 後繼內閣의 出現에 잇서서는 매우 至難을 豫想한다。卽 元老、重臣을 爲始하야 政黨、政界要路에서는 아모조록 議會政治를 尊重하고 政黨의 意思를 全然 無視치 안는 中庸的 强硬內閣을 希望할 에對하야 軍部는 政黨과 妥協的氣色이 잇는 內閣에는 陸相의 推薦을 拒絶하겟다 하니 兩者를 滿足시킬만한 人物은 想像할수가 업스므로써다。卽 宇垣가튼 이는 政黨과 妥協하라는 이라 할지며、平沼가튼이는 政黨을 無視하는 이라 할지니 그兩者를 無難히 包容할 人物이 누구뇨。이 點으로 보면 今期組閣의 困難은 二、二六事件以後의 그것보다 一層 甚하것을할 수잇다。

四

如何間 今次 內閣의 首班이 될 人物은 政黨과 妥協할 사람이 아닐것은 陸軍의 態度가 明瞭한가를 미루어 보아 알수잇다。그러므로 議會에 잇서서 政黨과 正面衝突을 할것은 必然의 勢며、딸아 그內閣이 議會를 解散할것도 想像키 不能하다。그러므로 總選擧의 結果 來하는 特別議會에 相當한 政府、政黨도 何等 對策이 업다면 正面衝突로 될지니 新政府는 議會解散後 新政黨을 組織하거나 既成政黨으로 하야금 新內閣을 支持하도록 만들지안흘수는 업슬것이다。이러하다면 從來의 知名人士로서는 그 任에 當할者 두을지며、이가튼 政治的 變化는 日本政治史上에 重大한 紀元을 劃하지 안을수업슬것이다。

後繼內閣閣僚中엔 政黨出身一名도不願

首班은少壯革新分子를要望

新內閣과陸軍側期待

【東京電話同盟】次期內閣에 對하야 陸軍方面에서 期待하는바는

一、既成政黨은 自由主義思想을 基調로하는 現狀維持와 政權獲得을爲하야 黨略을希求함에 不過하며 何等決意와 認識에基한政策도가지지안헛다 如斯한 政黨과가티 提携하야서는 庶政一新을 實現할수는 全然不可能하다 故로 次期 內閣은 一名이라도 既成政黨의 黨人이閣僚로되는것을願치안는다

一、少壯이거나 迫力이잇는 者가 아니면 革新政策實施가 困難하므로 次期內閣은 少壯革新分子로써 組織한 强力內閣임을必要로한다

一、現行內閣機構대로 閣僚全部를 決定하든 庶政一新의 必須要件인 內閣機構改革에 第一障碍가되므로 次期內閣은 少壯閣僚內閣으로서 積極的으로 兼攝하고 極히 敏速且徹底的으로 機構改革을 斷行할 必要가잇다

一、既成政黨으로서 何等 反省하는 배업스면 敢然議會解散을 斷行하는 決意를 要할것이다

一、既成政黨의 反省機會를 促進하는 同時에 時代認識을 確實히 把握하는 議員及政黨이 出現하는 것이 참으로 緊急한일이다

等等의 諸點에잇는데 速히 正當한 强力的政權及黨政의 眞使命에 邁進할機會가 確立되여 此等政治의 萬般을 掌行하는 陸軍大臣은 政治의 指導協力과가튼 變則的立場을 버리고 一日이라도 速히 軍의本務인 軍務에 專心할수잇는 新時代를 招來하려는데잇다 그리고 이實現을 보기까지는 世上의 모든 毁譽褒貶을 超越하야 所信에 邁進할 決意로 觀測된다

前途暗澹、難航豫想

【東京電話同盟】軍部와政黨間의 苦境에서서 廣田內閣은 드듸여 總辭職하엿다 二、二六事件의뒤를맛고 庶政一新을 標榜하고 出發한 道의스파ー트를 떠낫스나 政治의推進力으로서의 背後에 恒常 軍部의 上押을 바드며 前面에는 그러치안허지만 與黨으로서 政民二大既成政黨을 가지고 現狀維持的勢力과 革新的勢力의 中間에서서 何等의소리도 하지못한 九官鳥的存在를 繼續하여왓는데 聲明의亂發로 始終하면서 矛盾만흔 七大國策을그唯一의 看板으로危險한발자최를 거러온廣田內閣은 그만치 또玆에悲慘한 最後를마춘것도 말하자면 宿命的이라 고할것이다 新裝된 白堊의 殿堂에서마지한 今議會가 重大한 波瀾을包含한것은何人를莫論하고 豫想하고잇든바이나 再開議會劈頭로부터 如斯히 急激히 正面衝突할줄이야 아마 誰何를不問하고 想像한바는아니엿슬것이다 그리고 二十一日本會議場에잇서 濱田氏와 寺內陸相과의 對立은 假令枝葉末梢的인것가트나 그實은 爆彈이 炸裂되여 停會二日 그동안 解散으로決定되엿든것이 閣內의 政黨出身大臣對軍部의 對立은表面化하야 二十三日閣議에 서再轉하야 드듸여 內閣不統一을 理由로 廣田內閣은 瓦壞하고만것 이다 今後 果然如何한人物이後繼內閣의首班으로될지 前途는暗澹하야 難航을 豫想케한다

新內閣組織되면 議會即時解散?

【東京電話同盟】後繼內閣은 어느人物로서 組織되지 目下近衛內閣、宇垣內閣、南內閣、平沼內閣及末次內閣、大角內閣、林(銑)內閣等諸說이紛紛한模樣으로 誰何에 決定케될가 全然不明이데 如何턴지 陸軍의 庶政一新要望은 相當히 强硬하야 結局革新意識이 一層强한 內閣이 實現될것으로 推測된다 從來陸軍이 提唱하여온 行政機構改革도 어느程度斷行할必要가잇고 따러서 政黨으로부터 黨代表의 閣僚를 出馬시키지안코 閣僚數는 될수잇는대로적게하여 兼任하는 것이아닌가고 推測되며 內外의 重大時局을 正當히認識하고 國防充實、國民生活安定에 適應하도록、適切한革新政策을 遂行하게될것이라한다 後繼內閣이 政黨과 協力치안는限 政民兩黨은 反對的立場에서게되여 結局 內閣의손으로 解散은 不免할것 이다 그리고 이解散을 契機로하야 新政黨運動은 活潑히 表面化하게될것이아닌가 觀測된다

議會解散必至視코 大藏省、서 諸般準備

【東京電話同盟】內閣이 總辭職한結果 十二年度豫算案 稅制整理案 電力國家管理案等이 如何히 取扱될가에 對하야는 後繼內閣組織後 卽時 議會解散이 行하게되지 그與否에 依하야 決定될것이나 大藏省으로서는 後繼內閣組織解散이 行하게되는 至라보고 大體 左와 如한 觀測下에 準備를 進行하고잇다。

一、十二年度豫算은 解散에 依하야 不成立되엇기때문에 憲法第七十一條에 基하야 前年度豫算을 施行하는同時에 實行追加豫算의 編成에 依하야 國防計畫 其他緊急不可缺한 經費를 計上하야 特別議會에 提出하기로될 것이므로 事實上 豫算不成立에 依하야 何等支障을 招來하지는 안는다

一、稅制整理案及電力國家管理案과가튼 重要法案은 準戰時體制의 必要에基한것이오 特別國防費其他重要國策의 經費財源으로서 增稅는 到底히 避할수업는것이므로 後繼內閣如何에不拘하고 斷行될것은 틀림업다

도左右에對하야 馬場藏相은 二十三日閣議散會後左와如히 말한다 後繼內閣이 如何한 內閣일에 不拘하고 國防費其他重要經費를 計上함은 絶對必要한 狀態이므로 十二年度豫算이 不成立이되다면 實行豫算으로이를 要求하게될것은 疑心할수 업다 增稅에 對하여도 國防費其他財源을 公債에만 依賴할수는 업스므로 이는 當然히 實行될것으로보아 이는 自己가 이 업슬것이다 이는 마치 料理한 메뉴를만들어 논것과가타서 스ー프의 種類는變함이잇드하더라도 料理를中止하는일은 絶對로업슬것이다

湯淺內府를勅使로 西園寺公에御下問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압서는 後繼內閣에 關하야 西園寺公에 御下問하압실 勅使로서 湯淺內府를 廿四日 午前十時四十五分 東京驛發列車로 興津에 差遣하압시엇다

二十四日中으로 組閣大命降下?

園公에게勅使로差遣된內府 今午後八時前歸東

【東京電話同盟】廣田內閣總辭職에伴한 後繼內閣에關하야 天皇陛下께압서는 二十四日 湯淺內大臣을 勅使로서 興津坐漁莊에잇는 元老西園寺公望公에 보내시사 時局收拾의 重大責任을 負할 後繼內閣首班者에 關하야 御下問하압시게되엿다 따라서 湯淺內府는 勅命을 奉하고 二十四日午前十時四十五分 東京驛發로 西下 同午後二時四十分 興津着 卽時 靜岡縣廳의自動車로坐漁莊에赴하야西園寺公과 會見하고 御下問의趣旨를 傳達하엿는데 西園寺公으로서는 御下問에 奉答하게될것이며 內府는아마 午後七時四十五分 東京驛着歸京 卽時 宮中에參內 天皇陛下에 拜謁의御吩咐를맛고 西園寺公의 奉答內容을 傳奏할것으로 推測되며 二十四日中에는 後繼內閣組織의大命이 降下될것으로推測된다

內府、平沼男訪問

【東京電話同盟】湯淺內府는 二十四日午前九時半 平沼樞府議長을 西大久保私邸에 訪問하고 後繼內閣에關하야 平沼男의 意見을 聽取한바잇섯다

獨逸飛行機四臺 西政府飛行場爆擊

【바렌샤二十四日發同盟】獨逸巡洋艦그라후·슈페號를 根據로한飛行機四臺는 二十三日早朝에 西班牙東南岸아르메리아近郊로쿠에타스飛行場을 爆擊하엿다 바렌샤政府는 右에關하야 如左히 聲明을發表하엿다

카르타헤나海軍根據地司令部로의 報道에依하면獨逸巡洋艦그라후·슈페號는 二十三日早朝아르메리아沖에來航하다 同時刻에 水上機四臺는 아르메리아近郊 로쿠에타스飛行場上空에飛來하야 爆彈을投下한後 누레號가까운水面에 着水同艦上에回歸하엿다

人事大移動決定 朝滿官吏交換도準備

南總督은 赴任以來人事行政의 刷新을 期코자 來三月初旬頃에 半島人事의 大移動을斷行하기로 決定하얏다는데 此를契機로 朝滿官吏를 相互交換任命하고자 去二十一日부터 新京에 開催中인 滿洲國省長會議에 新貝人事課長을派遣하야 其準備에 重要折衝을 行케하얏다 한다

後任海相에는 末次米內兩將有力

【東京電話同盟】後任海相에 對하야는 勿論後繼內閣의 首班이 誰가되지 그에依하야 多少人選을 달리할지모르나 軍事參議官末次信正大將或은 聯合艦隊司令長官米內光政中將이 就任될것이라 고 推測된다 末次大將米內中將 모도 無條約第一年의 海軍을 짊어질만한 人材이오 또海軍部內에 一般青年士官의 興望을 一身에 모으고잇는 名提督이다

八面鋒

◇軍部와政黨의 正面衝突은 마침내 內閣不統一을 이르키어 끄더지기로 有名한廣田首相도 마침내 總辭職을斷行。

◇後繼內閣은 어떠케되느냐하는것은 아모도推測할수업는일이나、强力內閣의要求만은 어느便에서나 一致。

◇어떠한人物이 果然實行力을 가진强力內閣을組織할가。

◇新內閣이成立되면 庶政은어찌되며 財政은어찌되며 金融은어찌될가。

◇物價騰貴와 生活不安定을 내세우고 政黨이 떠들는판이니 新內閣과現議會가 和協할수잇슬가。

◇그러치아니하면、新內閣의손으로 議會解散을 斷行할것인가、東京政局의 天氣豫報는 아직도 盡天曇模。

今日本紙四面

義勇軍派遣에關한 獨伊意見一致 廿五日英國에送達

【羅馬二十三日發同盟】獨逸空相 피링將軍은 二十三日 午前나폴리로부터 羅馬에歸還하야 卽時 베네티아宮에 뭇솔리니首相을訪問하고 義勇軍派遣禁止問題에對한 對英回答案에對하야 最後的協議를遂하엿다 席上뭇솔리니首相은 內亂不干涉 義勇軍禁止外宣傳및 財政的援助를 모두 禁止할것을 主張하엿는데 피링空相과의間에 意見이 一致되엿다 解釋된다 如斯히 獨伊兩國政府의 回答도 거의完成되여 二十五日에는 英國에 送致될模樣이다

世界週報

第七十議會開會

二、二六事件의 뒤를바든 非常時廣田內閣의 最初의通常議會이오 또內로는稅制改革內閣 行政改革問題 外로는 對中 對蘇 對歐洲의外交問題等波瀾이 重疊된 難問題가 山積한 第七十議會는 드듸여 一月二十一日에開會되엿고 二十一日 衆議院本會議에잇서 政友會濱田國松氏의 軍部攻擊演說은 前日의政民兩黨大會의 反軍態勢에 刺戟된軍部를 極度로 激昂시켜 드듸여 政黨、軍部의 正面衝突을 表面化하엿다 그리하야 政府는 二十一日衆議院에서 政友會濱田氏의 寺內陸相의答辯取消要求에對하야 對策을 講究하기爲하야 그날夕陽 本會議散會後 卽時院內에 臨時閣議를열고 二十二日부터 二十三日까지 停會를 奏請하기로決定한 그날午後九時에 上奏裁可를 仰한것이다

廣田內閣總辭職

去二十三日停會중이든 廣田內閣은 解散이나 總辭職이나의 岐路에서서 苦悶하던나머지 이問題를中心으로 二十三日臨時閣議를開催하엿슨데 軍部及政黨出身閣僚間에 意見이 一致되지 못하야 마침내 閣內가不統一되엿스므로 廣田內閣은 總辭職을 決行하기로하고 二十三日午後四時五十四分辭表를 闕下에 捧呈하엿다

니카라과運河開鑿

米國海軍은 無條約狀態에對處하기爲하야 海軍兵力整備擴充에 全力을 傾注하고잇든바 요즘 따로 니카라과運河를 開鑿하기로 決定하엿다한다

米海軍渡洋作戰計畫

米國은 無條約第一年을마지하는 世界第一海軍을 目標하고 超弩級艦二隻을 建造하게되엿는데 다시 第一線海上部隊의 戰鬪力强化와 渡洋作戰遂行을目標로 後方部隊五十四隻을 建造하며이以外 大型戰艦建造、괌、믯드웨이、웨크等三群島에 空軍根據地建設을 計畫中이라한다。

『킬』運河通航禁止

獨逸政府는 昨年十一月十四日 베르사이유條約第十二編 國際水路에關한 條項廢棄를 發表한바 잇섯는데、또今十六日 海軍省令으로 外國軍艦의『킬』運河通過를 通告하엿다。베르사이유條約第十二編第六款第三百八十條以下外國軍艦의『킬』運河通航에對한 自由均等條件을 部分的으로 廢棄한것이라한다。

佛驅逐艦을爆擊

佛國驅逐艦隊는 모록코植民地의 情勢不安에 鑑하야 大西洋艦隊와呼應하야 地中海에 一大示威演習을行하고자하든바 十八日佛飛行機一臺가 地中海上에잇는 佛國驅逐艦隊에 爆彈六個를 投下하엿다는데 多幸히 命中치 안헛기때문에 無事하엿스나 地中海情勢가 바야흐로 一觸卽發의 危險한形勢에잇는만치 이報道는 依然佛國朝野를 騷亂케하엿다。

英國政府사이프러스島에 空軍根據地設置

【倫敦二十二日發同盟】英國政府는 英伊紛爭當時의 經驗에鑑하야 英伊紛爭이勃發한대 말타島根據地만으로는 到底히 東部地中海를 確保할수업는 實情에鑑하야 사이프러스島를 重要空軍根據地로定하기로 決定하고銳意調査를 進行하고잇섯든바 陸軍次官사순將軍과함께 現地調查에 敎育總監브루·보소앙元帥는 空軍에 基하야 二十七萬磅의 豫算으로써 사이프러스島니코시아市에 最新式空軍根據地를 設置할計劃을 樹立하엿다고 傳한다 右計畫이 實現되면 사이프러스島駐屯軍도 增員될것이라고 解釋된다

日曜氣配

◇期米 買上時期는 政變때문에 自然延期될模樣으로 게다가 產地强調로 目先下押에困難할模樣

◇株式 目先失望에 溺合이나大局不變 政局安定待에氣迷

000825

改造 二月號 八十錢 (送料三錢) 東京市芝區新橋七丁目 振替東京八四〇二 改造社發行

議會特別の使命 劃期的第七十議會は開かれんとする增稅、尨大豫算外交問題等を控へて苦難の政黨と國民は如何に鬪ふべきか 憲政擁護の信念に燃ゆる佐々木博士の烈々の言を聞け 佐々木惣一

米國瞥見…小泉信三

東アフリカより…小島威彥

世界情報 結婚珍話…石黑敬七

プウシキン百年祭を前に…中山省三郎 實行する文學…室生犀星

風雲兒・張學良…山上正義

怪奇實話 破獄囚『禿げ髮』 入獄したら無名氏となり絶對に出獄し能はざる十八世紀・倫敦法令を、これは見事に「頭」によつて破獄せる男の怪話 小栗虫太郎

社會大衆黨の立場…關口泰

「時事新報」の解散…鈴木茂三郎

法律時論…末川博 馬籠村の現在(隨筆)

日本外交論…伊藤正德

支那の近状を報告す 蔣介石南京歸着の報あるや直に渡支して渦中の諸要人と會し事件の眞相を衝き彼地より對支國策百年の大道を烈々國民に愬へた熱文 (在上海) 山本實彦

岐路に立つブルジョア政黨…大森義太郎

後繼內閣論…寺池淨

輿論とその指導…本田喜代治

北洋漁業の癌…蜷川虎三

日本映畫作家の現實…岸松雄

日本國民に警告するの書…王造時

文學賞小論…高見順

麵は語る…長谷川如是閑

二階堂放話…久米正雄

官許ジャーナリズム…向坂逸郎

日本國家學序說…佐治謙讓

獨逸の植民地要求とスペイン問題…鈴木東民

アナアキズム運動の斷想…新居格

名記者ヘンリイ・スミスの片影…嘉治隆一

二・二六事件一周年…淸澤冽

ハックスレイの諷刺小說…崔載瑞

議會と政黨の人々…阿部眞之助

西安事變の中間報告…松本重治

オリムピック東京大會決定の眞相…稻村七郎

新獨乙の印象…淸野謙次

小說 七代將軍の告白…武者小路實篤

僕達と志摩氏…鶴田知也

惡の序章…尾崎士郎

ひとの男…宇野千代

廣田內閣の審判

▼總辭職の外なし…佐々弘雄

▼內閣は退却すべし…風見章

▼政局の行方…宮澤俊義

▼速かに退却せよ…加藤勘十

▼女には無用の內閣…山川菊榮

▼內閣有終の美…馬場恒吾

▼今暫く放置せよ…中野正剛

▼日本人的良心を示せ…橋本欣五郎

朝報案內

音樂 新年號定價二十錢 音樂六ー쓰、樂譜其他記事滿載 普通ー뻘三、박묘호자守歌兩原曲 發行所 京城齋松町 音樂社

京城女子商業學校生徒募集 ◎本科 第一學年 約百名 ◎出願期限 自二月一日至三月五日 選拔試驗 三月七、八、九、十日、四日間(詳細照會) 京城府光熙町一ノ八〇 (電光化門 一五八二、二三九六)

朝鮮人官吏에게 相當額增俸考慮

먼저高等官과巡査에게實施 判任官은追後로!

官界에떠도는明朗譜

총독부를 비롯하야 각소속관서의 조선인관리는 고등관판임관을 물론하고 일본내지인 관리보다 이중으로 봉급에대한 대우를 바더오는 형편이다 그것은 일본내지인 관리는 특활이란 막대한 가봉(加俸)제도가 잇슬뿐아니라 봉급의정률(定率)이 조선인관리보다 현격한고위(高位)에잇는까닭이다 그리하야 조선인관리는 어느수준까지 승급이된후에는 상당한 변한이되어도 승급의길이 거의무색되고마는현상이다 직업그것의 책임파의무도물론 크지안흔바 아니나 생활의근거와 토대를삼고잇는 봉급의효바에도 중대한관심을 갓게되는동시에 이로인하야 사무능률에 막대한관계가 잇는것을 간파한 총독부당국에서는 위선 금년도부터 상당한예산을 세워가지고 조선인관리봉급령을 개정하야 조선인관리의 봉급의 정률을 노피는동시에 상당한증봉(增俸)을단행하야 사무능률증진을 도모하리라는데 제일착으로 조선인고등관과 순사들에게 실시하고 다시계속하야 판임관들에게도 실행할터인데 종래제도의불합리를부르지저오든 조선인관리봉급제도는 그증봉과정률이과연어느정도까지 노파질는지 실로중대한주목을끄는바인데 하여간조선인관계에 일종의명랑한 소식이다

今春드러最初의 "入試地獄"開門

今日、京城女師第一次考査

금춘입학시험지옥(試驗地獄)의 최초의 스타-트는 경성녀자사범학교에서 끈헛다 전조선에서 단한고밧게업는 녀자사범학교임으로 지원자도 전조선각도(道)에서 몰렷스나 그제일회의고사(考査)는 각도학무과에위촉하엿고 제일관문(關門)을 무난히통과한사람이라야 제이관문에드러설수잇게쯤되엿다

경성녀자사범학교 금년입학지원자중 경기도관내의 입학시험은 이십사일 오전아홉시부터 부내황금정(黃金町)륙정목 경성녀자상업학교에서 제일일의 과목을보엿다 이날 시험을 치르는사람은 심상과(尋常科)일백륙십이명과 련습과(演習科)와 강습과(講習科)에 일백삼십명으로 합계이백구십이명이엿는데 모다들 오마조마한 마음으로 시험문제를 책상우에 노코 가슴을 조리우고잇섯다

【사진은 시험을 치르고 나온 녀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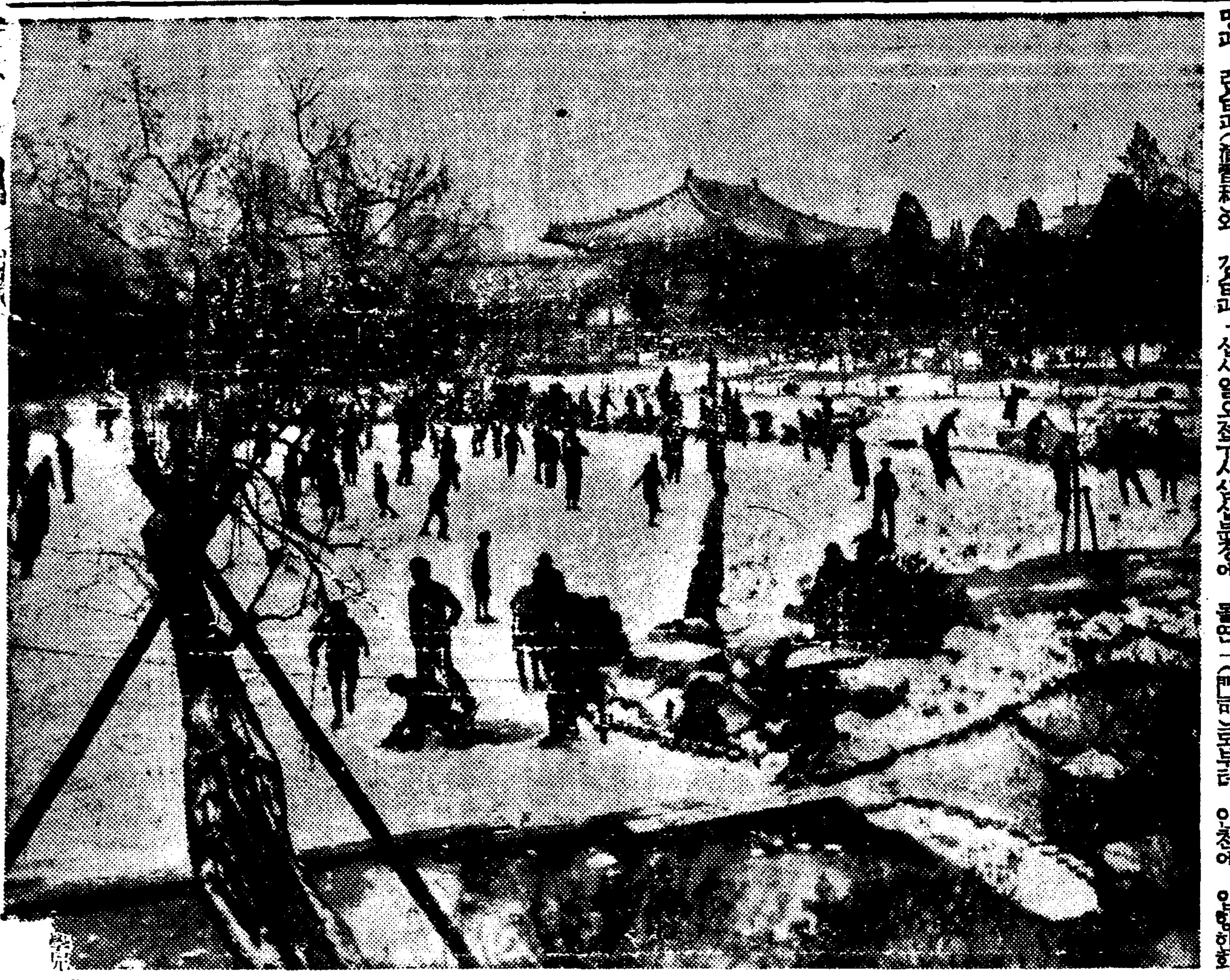
仁川港碇泊中의 高陽丸에出火

船體貨物半燒、乘組員一名燒死 原因損害는調査中

【仁川支局電話】인천항부두제일잔교(第一棧橋)아페 정박중이든 고양환(高陽丸)(一四〇톤)에 이십사일오전구시삼십분경에 돌연 발화하야 맹렬히타든중 경비선의 출동으로 약한시간후에 겨우 진화하얏다는데 이배는문사(門司)로부터 인천에 입항하회 ... 욜선으로 송조원한명이 타죽고 선체하물의 반소를 당하얏다하며 원인과손해는 방금조사중이라한다

新設町에染病

신설정(新設町)삼백칠십삼번지의 이십이호 정영조(鄭榮祚)의형영순(榮淳)(一)이는 이십사일 아츰 열시경에 무슨병으로인지죽엇는데 이어서 정영조의마누라홍씨(洪氏)(三○)와 조카 김려규(金麗奎)(二)가 함께일코잇스므로 소관경찰서에서 정찰의를 매장하고 검진한결과 두사람은모다 [illegible] 진단되엿다고한다



밋슌·스쿨引繼를 社會一般에期待

米國서온總務의來光을機會로 各校學父兄會猛活動

【光州】문제중에잇는남장로교경영인광주수피아여학교(光州須彼亞學校)와 숭일학교(崇一學校)목포(木浦)정명과영흥(貞明、永興)양교 또는순천(順天)매산남녀양교(梅山男女兩校)이며 전주(全州)신흥기전(新興紀全)양교 군산(群山)영명매리돈(永明美理敦)양교등이 운명을가티 금춘신입학생부터 모집치 아니하고 점진적으로 폐교한다함은 루보하엿거니와 그비보를드른 각지각학교학부형들은 흥분된회혹은 대책연구회등을조직하야 각방면으로 활동을 하여왓섯스나 이러타는 효과가업시 오늘까지 나려오든바 문제가 문제인만큼 선교사학무위원들로서도 어찌할수업슴으로 미국(米國)장로교본부에서 동교총무가 금월이십구일경에래광하야 전기각교의존폐를 결정할터이라는바 각지학부형들은 지금까지 국한되한부형을 중심삼아 일축하야 오든것을 일보나아가서 이문제는 단순한 [illegible]

▲木浦側 十九日에 永興、貞明兩校學父兄四十名이 永興校에參集하야 善後對策을 協議한結果 米國에서온 總務에게 兩校讓渡交涉代表委員으로 金炯奎 崔瑩兩氏를選定

▲順天側 梅山學校維持後援會發起로 二十二日에 順天公會堂에서 一般市民大會를 開催

▲光州側 須彼亞 崇一兩校學父兄會發起로 二十六日午後六時에 新光園에서一般有志會合

待望의淸津水産校 開校는明年度에

五年制甲種으로總費는卅萬圓

【淸津】정어리(鰮)업서진 어도(漁都)청진이 한산한요사이 다시반가운 소식이와다 일즉부터 종종들려오든 청진수산학교(淸津水産學校)설치문제는 총독부당국에서 고려중이든바 최근그필요를늣기고 청진에설립하기로되야 느저도 오는소화십삼년도부터는 개교하게되리라 한다 새로 탄생할 수산학교의 내용을듯건대 조선에서는 처음인로 오년제 갑종수산학교(甲種水産學校) [illegible] 만원의 거출을 보리라한다 이에 함북도당국과 청진부에서는 하로밧비 만단준비를 하고저 어기초(漁期初)부터 맹렬한 활동을 하리라한다

門中財一千圓을 育英事業에喜捨

【長箭】장전항에 조종(趙宗)인 권씨문내에서는 장전육영사업에 크게 [illegible]

드레ー機 行方不明

安否를念慮

【上海二十四日發同盟】 작년십이월중(日本)동경(東京)간 련락비행의 최단시간의 기록을 목표로 비행중 동경의 목적지를 목전에 두고 구주(九州)에서 추락하엿든 불란서 비행사 「자핀」씨의 뒤를 이어 이십일 오전여섯시삼십분(일본시간 이십일 오후세시삼십분)무련기사 「미슈렌치」씨와 가리 파리를 출발한 세계적 명비행가 「마르체르·도레」씨의 조종하는 「코ー드론·심몬」기는 그동안 극히 순조로운 비행을계속하여 이십삼일 오후는 「하노이」에 도착하여잠간 쉬는듯하든 다시 상해(上海)로 향하야 상해에는이십사일 오전세시(일본시간오전네시)도착할 예정이어서 상해교외비행장에는 다수의관민이 출영하여환영준비를하고 기다리고잇섯스나 동네시삼분까지 비행기는 그림자도 보이지안코 행방이 묘연되고잇다 하노이를 출발하야 비행시간은 십여시간이나경과하야 항속(航續)시간도 넘지안코 도상에 [illegible] 응답지안코 그안부가 념려되고잇다

槐山邑附近에서 街上强盜突現

被害卅圓、犯人逃走

이십삼일 밤여덟시쯤에 충북괴산(槐山)읍내부근 길거리에서 괴산면사는 김인수(金仁秀)라는사람은 별안간에 나타나는 강도에게 돈을 어더맛고 현금삼십여원을빼앗겻다한다 이신고를밧고괴산경찰서에서는 각지경찰서로 통지하야 그범인을 찻는중이라한다

求職은前科者 巧妙한詐欺術

이십사일 오전여섯시쯤에 부내 서대문서 형사대가 그관내 행촌정(杏村町)이백십칠번지의 사벽장이호를 습격하고 고단한 새벽잠을자고잇든 전과일범 심상원(沈相元)(二七)을 체포하엿는데 가 엄중한 취조를 하고잇는데 그는 소화십년 오월 심일 서대문형무소를 나온후 취직자리를 구하여 보앗스나 뜻대로 되지안흠으로 작년시월부터는 형무소안에서 선배에게배운 우수한 사기수법으로 [illegible] 부내각처의 상인들을 울려온것이라고한다

또는 실제취직 [illegible] 이십사일오전구시 자백하엿는데 고원으로 약삼백원의 피해나된다는데 여죄가 상당히만흘것갓다고한다

濟州島赤色!! 農組事件公判

來二十六日에開廷

【木浦】제주(濟州)전도를 무대로 적색농민조합(赤色農民組合)을조직코저 그준비공작을하다가 미연에 발각된 제주적색농민조합창립준비위원회(濟州赤色農民組合創立準備委員會) 사건은 지난소화구년십일월부터 검거의선풍이 이러나 한동안 제주전도를 울린든 소연케하든 사건으로서 검거당시에는 칠십팔명의 다수를헤아리든니 이래삼년간에 걸처서 취조와 송국등의 순서를밟바 결국은 십륙명만이 기소가 되엿섯는데 작년 오월에 예심종결이되엿섯스나 지금까지 공판이미루어오든바 오는 이십륙일에야 공판을하리라고한다 그런데십륙명의 기소중 피고 김두정(金斗珽)은 보석되여 나오고 동부생수(夫生洙)은 옥중에서 사망하고 다음사명만이 출정하리라고한다

▲夫聖勳▲金京奉▲金日準▲梁東時▲張洪鎬▲洪順玉▲張瑞奎▲張炳允▲姜公佑▲金榮五▲梁斗化▲夫丙準▲金元根▲李起灼

喘息病患者가 心臟破裂로急死

永樂町怪屍體의身元判明

조간기보=이십삼일 오후열시이십분쯤 부내영락정(永樂町)이정목 식촌병원(植村病院)아기통용문안에 피를토하고 무참하게엎어진괴시체는 사건발생직후 본정서 사법주임이하 십여명의형사대가 발도독 각방면으로수사한결과 이십사일 오전한시반쯤에 괴시체의 신원과 죽은원인을알앗다

괴시체는 부내수정(壽町)이십팔번지에사는 목수 금춘원(今村園治)(?)로 작년사월부터 천식(喘息)으로 신음하든중 그날밤 영락정(永樂町)일정목 중앙관(中央館)에 활동사진구경을갓다가 도라오는길에 기보한구세군경성소대(救世軍京城小隊)아페서부터 피를토하기시작하야 급한김에 전기병원을차저갓섯는데 문안에드러서자 고만쓰러저 파렵되여 급사한것이라고한다

五百餘圓喪財

김포군 하성면 마곡리(金浦郡霞城面麻谷里)오백오십칠번지 미곡행상 김관제(金寬濟)(三五)는 이십삼일 오후네시 삼십분쯤에 남대문시장(南大門市場)에 쌀권을사려왓다가 주기속에 너엇든 현금오백사십원을 소매치기에게 도적마젓는데 본정서에서는 범인을 엄중수사중이라고한다

失職男便장사미천을 竊盜질로서提供

警察도그情狀에는同情 貧困이나흔犯罪

【開城】신계군마서면 청죽리(新溪郡麻西面靑竹里)륙백삼십구번지 홍순용(洪淳容)의처 박덕복(朴德福)(二○)은 생활난에못이겨 남편과어린 두자식을 데리고본가에가서 덧부치의 가련한 생활을 하다가 작년 십이월십오일 오후 세시경 다시 시집으로도라오든 도중부내 원정(元町)사백오십일번지 자기모친의친척되는 조용서(趙鏞序)씨집눈잡간틈을타 마침집안이 비여잇섯다 한다 이때 돈에환장이되든 덕복은 지난음력시월 그집딸되는 옥진(玉珍)의 결혼식날에 구경와다가 금반지 금가락지를여러개본일이 련상되자 물욕이불가치지밀어방으로드러가 장롱속에 잇는옥진의순금잡화지환한벌과 이중지환(二重指環)한개와그외 진주끼인 반지 한개(시가 이백팔십원가량)를 대당히 훔처가지고 즉시 남대문부근 금은세공방(金銀細工房)에가서 진주끼인 반지 한개와 이중반지 한개만을 오십팔원오십전에 팔어가지고 즉시신계(新溪)로 도라가 남편에게 그돈과 남어지 금잡지환까지주엇다한다 그는주면서 울음석긴음성으로 남편에게 자기가 도적한사실을 고백하며 그러나이것을 가지고 장사미천을삼어주기를간원하엿다한다 그래서 이들부처는 내종 다시 미천을하야 금잡지환놋장만해가지고 조씨집을차저가 자기들의 죄상을 사정으로호소하며 용서하여주자고 굿게굿게약속한후 남편 순용은 그이튼날 행상(行商)에 큰성공을 개회하고 개성(開城)방으로떠나게되엿다 그러나벌서 이범죄사실이 경찰에 알게되여 방금전기 두부처는개성서형사실에 구금된신세가되엿다 이에바사법주임은 [illegible] 죄는 미우나 그정상이 가엽기로 특히관대한 처분을하리라한다

運動競技

同德女高主催의 女子普校卓球 申請은卅一日까지

同德女子高普主催의 第一回全朝鮮女子普通學校 卓球大會는 來二月七日午前十時부터 同校卓球室에서 開催키로되엿다한다 [illegible] 야 主催側으로 곳申請하기를바란다하며 參加料는 밧지안는다고한다

延期中에잇든 全日本氷上 諏訪湖에서開幕

【岡谷電話同盟】 二日間延期되엿든 第八回全日本氷上競技大會스피ー드選手權競技第一日은 二十四日午前九時부터 諏訪湖南岸石[illegible]크에서 [illegible] 大會副委員長久保田氏의人事가잇슨後 選手宣誓代表하야 金正源君(關東明大)의宣誓가끗난다음 九時半부터 女子五百米로서 「레ー스」를 開始한바 夕刊마감까지의戰績은 다음과갓다 (全部세파레ー트코ー스)

▲女子五百米決勝=1江島(奉天)五四秒八 2壹岐이사(安東)五六秒 3今村(奉天)五六秒六 4村山(奉天)五七秒五 5壹岐俊(安東)五七秒七 6沼陽(奉天)五九秒

"올림픽慈父" 쿠베탕男을救하자

스포츠人들이어

「近代올림픽의慈父」로서 世界스포ー츠人들이 다가티 敬慕하는 佛國의쿠ー벨탕男爵은 올림픽復活運動을위하야 全財産을 蕩盡하고 只今은로산누에 隱居하며 困窮한生活을 하고잇는데 이窮狀을보는 올림픽關係者들은 義捐金을募集하기로되엿든터인데 男爵은 「그런도움바들理由는업다」고 辭讓하엿다고傳한다 그러나 國際올림픽委員長 「하로ー투」伯으로부터各國올림픽委員또는體育協會에 쿠ー벨탕男爵救濟義金募集을勸誘하는 書信을 發送하엿는데그內容은다음과갓다

쿠ー벨탕男爵은 一九三六年의 노ー벨賞平和賞의 受賞候補의 한사람으로推薦되여 同男으로 하야금 財政的으로도 救助할것이라고關係者들은 크게期待하고잇섯스나 뜻박게落選되여 올림픽實行委員들사이에는 「올림픽의 慈父」의 救濟運動이 急速히이러난것이라는意味의 書信이다 한편義金을 辭退하엿다할지라도 노ー벨賞問題를 機會로 또다시 運動을이르킨것인데 男爵의 高潔한風格은 一層 스포ー츠人의 欽慕를 밧고잇다(寫眞은쿠ー벨탕男爵)

天氣豫報

槪況 七七四粍의 高氣壓은 滿洲로부터 朝鮮을거처日本內地로 퍼저잇서 黃海의氣壓傾斜는 緩漫하야 黃海道附近에는 小低氣壓이잇다 滿洲、南朝鮮의 東岸은 晴明하야잇스며 中北鮮은 흐려저잇고 處處에小雪이내리고잇다 日本內地는 天氣가良好하며 東北地方의西岸은 降雪이잇다

豫報 夜는 흐리고 [illegible]

主婦之友二月號に就て至急報

妊娠と安産と育兒法

三大全集綜合附錄 壓倒的大賣行

▲無痛安産新秘法
▲胎兒男女別速知法
▲妊娠한날과안한날早見
▲病者가妊娠했을때의手段
▲不姙症婦人이업는妊娠하는法
▲不具兒는어찌하야되는가
▲妊娠中의夫婦生活은어떠케?
▲잘안나는것을잘나게하는新秘法
[illegible]인新育兒法
[illegible]드는法

重要項目約二百種 これはほんの一部です

▲專門의博士와一流産婆約百名이苦心協力한三大全集全項目約二百種에 떠한大病院에서도以上할수업는것이다 醫師보다도産婆보다도信賴할수잇는大全集이라고大評判
▲看護婦産婆志願者도 이것으로資格을가질수잇다고專門博士의稱讚이만타
▲乳兒로부터小學校卒業까지의育兒法은이一冊으로充分、令孃들에게는理想的性教育全書라고어머니도大評判

[illegible]

クニト茸蔘 クニト茸蔘 クニト茸蔘 クニト茸蔘

美味의强壯劑
蔘茸토닉만은
꼭한번잡수어보시요

三越、丁子屋、平田等百貨店外各地有名藥房에서販賣

補血强壯劑

蔘茸トニク

五圓
二圓八十錢

[illegible]

代理店 株式會社 木村藥房 京城本町 振替京城四七五

間島延吉縣下로 千五百名을移民

三月初旬부터同月下旬까지順次로移送

每戶當田四町步式配定

에 준거하여 금번 삼월중순경에 집단이민(集團移民)을 이주시키기로 결정하고 지난이십

嶺南水害災民의뒤치닥거리

[釜山] 이십이일 이틀동안 경상남도청에서 도간부와 선만척식회사서무과장등이 여러가지로 협의를 거듭하고잇든바 이번구십호에그치는 인구 일천오백여명을 선발하야 척식회사 이주시키되 주로도내 산간부(山間部)여섯고을 리재민중에서 선발하리라한다. 그리고 이주자에게는 매호당 밧사정보(六反步)를 무료대부하기로되엿다한다. 그래서 전형에착수하고자 준비중이라한다.

電氣問題座談 府電化等決議

[平壤] 공영전기성회장으로진남 변전에 활약한 송정(松井)씨의 발기로이십사일오후한시부터 부내 경정(京町)부전회사상부(會社上層)에 집합되엿든 전기문제좌담회석상에서도 부전매도안은 단연반대한다는 결과를맺고 산회햇는데 아프로 부회의원을 격려하여 부전사수에향하여매진하기로되엿다한다.

문제와 인구일만오천여명이나사는 구룡리(九龍里)에완전한도로가하나도업슴으로 구룡리(九龍里)로부터 함서(咸西)이동도로

懸案의中等校와 港灣修築等決議

木浦三大事業期成會서

[木浦] 남조선중앙횡단선부설문제(南鮮中央橫斷線敷設問題)에 련관하야 남원까지가 대목권으로 지난이십이일 목포삼대사업기성회(三大事業期成會)에서는 부청회의실에서 림시총회를 열고 우선 급한 화교부터 함평 령광 고창을 경유하야 정읍에 이르는 남해선(南海線)의 촉진과 수산변래의 현안으로잇는 중등학교(中等學校)설치운동을 부의(附議)하고 신중토의한결과 「本會는 木浦港灣의 修築, 海陸連絡의 設備及 中等學校의 設置竝 木浦關係諸鐵道敷設의 促進을 圖하므로서 目的함」이란 결의를 한다음 곳 산회하엿다한다

咸南鮮地에尺雪 各處交通杜絶

[咸興] 이십일일부터 이십이일까지내린 눈으로인하야 함주군 덕산면영덕리(德山面英德里)로부터 홍원군원(洪原郡邑)에 이르는 원회선(元會線)일등도로중 함관령(咸關嶺)은 두자나머지의적설로 교통이두절(杜絶)되얏다 그리고 이번의대설로인하야 벽지대의교통도 두절된곳이만타고하는데 아직상세한상황은 알수업다고한다

차 마지할 파파씨-준녜에 의래객들에게 조흔이상을 주도록 중지기타에대하여 취체를해달라는 의뢰를 이십이일 평양서에 하여왓다 그내용은 작년중 평양을차저왓든 관광객은 오만명을 훨신초과햇고 그대부분은 모란봉에서 도라가는도중에 부벽루(浮碧樓)에들럿다가 유선을하고 대동강을 흘러나리는터인데 유선입금을고가(高價)로 밧는일이라든가 행상배(行商輩)가따라다니면서 물품을 억지로 떠맛기는등 관람객에게 불쾌감을일으키게할뿐아니라 반월도(半月島)의 로점기타에도 조흔기분을 못주니 취체를하라는것이라한다

虛榮에들뜬村婦 詐欺코發覺되자自刎

[新興] 구세말을 당하야 화려한 설빔을 동경한 나머지 부호의 손자며누리로 가장하고 포목상점에 가서 주단과 포목을 외상으로 어더가지고 가는길에 근본이 탄로되자 향한의 가락을 비텨든지 단도로 목을 찔러 생명이 위독하게된 허영에든가난한소부가잇다 ─함남신흥군원평면 남양리(新興郡元平面南陽里)이백륙십이번지에 사는신태복(申泰福)의 안해김고분(金古粉)은 지난이십일일 동면전상점(鄭義德商店)에가서자기는동리부호의 손자며누리이라 석부모의명령으로 필목을 곤호러 왓는데 그갑은 후일전하마하고 이십륙원어치되는 주단등속을 외상어더가지고 도라가는중 상점주인은 그행동에 수상한점을 간파하고 곳사람을뒤쫓게하야 도중

南浦港擴張運動 漸次로具體化

[鎭南浦] 대진남포건설을 목표로 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각관계당국에서 항만확장(港灣擴張)에 전력을다하고 잇는이때 오는 삼십일남포의대남을기하여 항만확장에대한 요망서를 제출코저준비중이라는바 회의소에서는 오는이십륙일 오후두시부터 의원총회를열고 구체안을 작성 제출하리라고한다

新興學校討論會

[全州] 전주신흥학교에서는 오는 삼십일오후한시에 동교강당에서 반대항토론대회(學級對抗討論會)를 개최한다는데 론제는 「조선의급선무는 아동교육이냐? 성인교육이냐?」로 량편이삼명여연사를 정하엿다고한다

三名에執行猶豫

新興農組再建事件 咸興法院에서言渡

[咸興] 지난이십일일 구형을바닷든 신흥농민조합재건(新興農組再建)사건 유원봉(劉元鳳)(二)원인점(元仁漸)(二)유지언(劉祉彦)(二)세명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사건의 판결언도는 이십삼일 오전열시 함흥법원에서열려 리(李)판사로부터 피고세명에게모다 징역이년오년간집행유예의판결이잇섯다한다

現存普校利用 二部制實施

咸北普校擴充補强策

[淸津] 함북조선총독교육확충심개년계획의하야 장연간기보갓거니와 완성후의 성적을 불은 기대하는바가 만흣나 이보다앞서 불일듯시몰려드는 아동들의 처리에 다소라도 완화를도모하고저 당국에서는 현재잇는공립보통학교를 리용하기로하얏다한다 측 일부학교에 이부교수제(二部敎授制)를실시하야 오전오후로 교수를 시키는한편 야학을 적극장려하야 해결하리라한다

水橋─長淵間線 開通祝賀盛況

[長淵] 조선철도주식회사 황해선 수교─장연간 개통은 지난 이십일에 기보한바와가티 거행하엿는데 당일에는 장연군내 관민유지와 각학교생도 다수가 출동하여 렬차도착을 환영하는동시에 오후한시반부터는 장연공립보통학교에서 장연번영회 주최로 성대한 개통축하식(開通祝賀式)을 거행하엿다 도청으로부터는 정지사(鄭知事)도 립석하고 조철 본사에서는 서무영업과장이 출석하고 리군수 도회의원등의 다수래석으로 자못성황을 일우어섯고 축하식에 이어서 축하연회가잇섯고 저녁에는 조철본사측에서 군수이하를 초대하여 정하관(井河館)에서 성대한 연회가잇섯는데 장연군민의 십년간의 숙망이든 철도개통이 실현된것이다

江上의行商船과 露店取締를依賴

[平壤] 평양상공회의소에서는 장

密輸關門 安東縣稅關의統計

密輸者의九割은 有産者와智識層

官吏廿七名、公職者十一名等筆頭로 大口犯則者도一、二等乘客

[新義州] 작년한해동안 신의주 세관안동현(安東縣)출장소에 발각된 밀수출(密輸出)자는 이백팔십팔명에 달하는데 이를 직업별로 나누어보면 대개가 유산자와유식계급으로 그중상인(商人)이 제일만코 더구나 이러한 부정행위를 경계할지위에 잇는관원들중에도 밀수출자가잇서 국경의 이색을 나타내이고 잇는데 이를직업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갓다

▲商人七十二名▲會社員六十八名▲敎育者三名▲官吏二十七名▲公職者十一名▲議員十名▲勞働者十一名▲宗敎家一名▲農業十五名▲軍人十一名▲新聞記者一名▲其他十七名▲無職三十二名合計二百八十八名

으로범죄자는 전부가 일, 이등승객이며 다시과거오개년간을 가격별로보면 다음과갓다

▲昭和七年度▲百圓未滿百六十一名▲五百圓未滿十一名▲一萬圓未滿一名

▲昭和八年度▲百圓未滿二百三十九名▲五百圓未滿七名▲一萬圓以上一名

▲同九年度▲百圓未滿八十八名▲五百圓未滿十二名▲千圓以上一名

▲同十年度▲百圓未滿百八十七名▲五百圓未滿六名▲千圓以上一名

▲同十一年度▲百圓未滿二百五十五名▲五百圓未滿三十名▲千圓以上三名

通化縣移住同胞 八千餘名突破

[通化] 통화현조선인민회관내의 이주동포는 작년도조사에의하면 일천오백이십삼호의가족수 팔천륙백팔십오명으로 그들의손으로 개간된수전도 이만구천백사십사일경이나된다고한다

興南商議所幹部 當面問題陳情

[咸興] 흥남(興南)의당면문제와 흥남상항(興南商港)

法窓에비친騷然相

其一 重病걸린妻弟를 沒情의極! 遺棄致死

發覺돼 法의 裁斷에─二年求刑

[海州] 자기처제되는 병든소녀를 길가에 버리여 죽게하고체형을바든 불의정한사나이─ 평산군서봉면 해수리(平山郡西峯面海水里)사는 김석춘(金錫春)(二)은 자기처제되는 조개석(曺介石)(二)이란 소녀가 병으로 자기집에 와잇는것을 작년십일월지난 오전아홉시경 그소녀의 고모의집인 금암면 대초리(金岩面大草里)로 데려다준다고 데리고나가서 서봉면진포리(西峯面進浦里)부근에 이르러 병든 소녀를 길가에버리고도망하여 그소녀는 그자리에서 애처롭게도죽고말엇는데 전기 김석춘은 이로말미아마 지난이십이일 해주지방법원형사법정에서 유기치사죄(遺棄致死罪)로 징역이년의구형을바덧다

其二 老總角脫線 少女를凌辱

[海州] 김매는동리처녀를 겁탈하려다가 목적을 달치못하고징역사리만하게된 탈선노총각이잇다 ─금천군구이면문성리(金川郡口耳面文城里)윤룡성(尹龍成)(二)은 작년십이월륙일 오후한시경 전기문성리부근에서 김매고잇는 그동리 리시발(李時發)의안해 송남순(宋南順)(二)이라는 열여섯살된 소부를보고 타오르는 성욕을 참지못하여 겁탈하려다가 그녀자가 고함지는바람에 목적을달치못한 사실이잇는데 이범죄사실로말미아마 지난 이십이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징역이년의 구형을바덧다

其三 四寸兄게對한富의憎惡을 放火로써報復!

自己는窮境、威兄은豪奢한다고

[海州] 장사는 형으로서 도아주지 안는다고 원한을품고 사촌형의집에불을노흔 해주군미률면전정리(海州郡美栗面傳亭里)김익룡(金益龍)에대한 방화사건의 공판은 지난이십이일 해주지방법원(海州地方法院)형사법정에서 이집원(伊集院)재판장주심 박(朴)이천(二川)두판사배석 중촌(中村)검사관여미테 개정되엇는데 렴외검사로부터 준엄한론고와동시에 오년의징역을 구형하엿다 기록에나타난 범죄내용을보면 피고김익룡은 어려서 부모를 다일코 그의사촌형되는 그동리김악개(金岳介)의집에서 십년간을 형과더불러 동거하다가 소화십년십일월경에 분가하야 그근처에서 혼자생활을해오든터인데 생활이 구차하야 남의집 고공살이를하며 어려운 생활을하는 자기를 사촌형김악개가 원망하여오든중 작년십이월 십이일 오후세시경 분한끄테 전기형의집 일부분을 태우다가 붓들린것이라한다

平壤 西朝鮮園藝講習會

△期間 二月十六日부터廿日까지

△場所 善行記念館

◇主催 鎭南浦果物興業平壤支店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라디오

二十四日(日曜)

◇午後六時 兒童劇(새날) 참새 學校 指揮 林湧恩

◇同七時二〇分 (東) 今井田淸德 人事─京城

◇同七時三五分 (東) 人事─京城으로부터全鮮中繼

◇同七時四〇分 講演 一、鴨江岸의守備 國境警備의實況에對하야 二、警察官夫人

◇同八時五分 京城音頭 一、늘양 二、압산타령 三、뒷산타령 四、개고리타령 五、도라지타령

◇同一〇時 朝鮮民謠 가, 六字백이, 나, 흥타령 李 玉 金 玉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 童話劇

◇同六時二五分 (東) 座談會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〇五分 (東) 邦樂

◇同八時二五分 (東) 音曲

◇同八時四五分 라디오·코메디

長篇小說 그의自敍傳 【34】

長白山人 作 熊超 畵

소년시대(三)

이때에 내 조부는 팔아먹을것은 다 팔아 먹고 서 조모도 돌아가고 남의집사랑에서 아이들에게 한문천자를 가르치고잇엇다. 나는 이렇게 된줄까지는 모르고 그래도 집 한간은 쓰고잇스리라고 믿고 잇엇엇다. 조부의 편지는 글씨로 쓴 편지에는 「잘잇으니 염려말아 네 누이도 잘잇다. 몸조심하고 공부 잘 하여라」 이러한 말이요 구식 한문체로 써 잇을뿐이요 이렇게 까지 못살게 되엇단 말은 한마디도 내게 알리우지 않앗다. 남의집 사랑에가서 식객의 신세가 되어잇는 조부의 앞에 내가 절을 할때에는 조부는 아모 말이 없엇다. 그 좋던 얼굴에는 검은 버섯이 많이 돋고 읽어잇기로 이름이 잇어서 번개같이 번쩍어린다고 하던 그의 눈도 마치 고름에 덮인것같이 빛이 없엇다. 나는 늙은 조부의 이러한 모양을 보고 모-든야심과 욕망이 다 슬어지고 다만 단한간집이라도 내집이라는것을 잡고 조부를 뫼시고 잇고싶엇다. 나 뒤 누이 애경이가 남의집 식구들틈에 눈치 밥을 먹고잇는것이 몹시가여워서 나는 누이를 다리고 뒷산에 올라가서 서 조모가 돌아가던일이며 고개집을 팔고 이집으로 오게되던일이며 이집에 와서 사는 모양을 물고 「이집에서 너 귀에 주시던?」 「그저 그렁지」 하는것을 듣고는 것잡을수 없이 울고 말앗다. 나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조선에 돌아와 직업을 엇어서 늙은 조부를 봉양하고 어린 누이를 공부를 시켜서 편안히살수있는집에 시집을 보내라고맘을 먹고 잇엇다. 그러나 지금 형편 갈아서는 앞으로 이태동안을 더 기다릴수도 없는것같앗다. 그렇다고 열일곱살 먹은중학교 삼학년생으로는 아모리그때세상이라도 직업을 구할길은 없엇다. 나는 어찌 할바를 모르고 이곳 저곳으로 친척과 아는 집을 찾아 돌아 다녓다. 조부가 부처 잇는 집에는 하루를 묵기가 고통이기 때문이엇다. 걸은 조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족하엿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틀사흘은 눈치밥을 아니먹고도 지날수가 잇엇다. 땅이 둥글다는 이야기며 회령선할을 켜는 이야기며 번개불로 등불을 켜는 이야기며 머리를 깍는것이 좋다는 이야기며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므로 무슨 큰 문화운동이나 하는듯한 자존심을 가지고 돌아 다녓다. 사람들은 내말을 매우 재미잇게 듣는 모양이엇스나 예수에 관한 말이 나면 다 들 질색팔색으로 반대 하는것이엇다. 나도 우리집에 斥邪綸音이라는 책이잇어서 그것을 읽은 기억이 잇거니와 예수교가 사특한 가르침이라는 인상은 내 친척되는 계급의 머리속에 대단히 깊이 박힌 모양이엇다. 그래서 예수교나 동학이나 다 어리석고 천한 백성들이나 하는것으로 역이는 모양이엇다.

나는 친척을 찾아 다니는 길에 박대령집을 찾아갓다. 박대령은 벌서 돌아가고 그 부인과 딸 예옥이와 단 두식구가 그마우라고 하는 바닷가 산골 책이 조고마한 초가집에 사는 것을 발견하엿다. 사년만에 찾아온 나를 더구나 양복 입은 나를 그들은 얼른 알아보지 못하엿다. 사모님은 변상한듯이 바스러지고 머리를 쪽진 예옥은 옛 몸집은 커젓스나 얼굴에는 옛날의 순진한 빛이 슬어지고 산전 수전 다 겪은 예편네와 같은것이 슬펏다. 내가 누군지알아본 사모님은 절하는 내 깨를 붓들고 울엇다. 나중에 들으니 대령이 의용구가 일진회를 끌고 선언서를 발포하엿을때에 박대령은 분연히 반대하고 일어나서 싸우다가 헌병대에 붓들려 거문도로 귀양을 가서 거기서 죽고 한푼유산도 없는 사모님은 예옥이를 다리고 헤매다가 할수없이 오빠 이며석을 사위로 맛앗스나 운현이는 헌병보조원이 되엇을뿐 술세로나 알아서 읍내에서 첩치가를 하고 예옥이를 돌아보지않는것은 벌서 이태가 넘는다고 한다. 예옥이와 살림을 하는 동안에는 운현이는 나를 제로 삼아 가지고는 예옥을 꾸짖고 술이나 취한때에는 때리기까지도 여러번 하여서 종과가 끊인날이 없엇다고하는데 어머니가 이런 이애기를 하는동안에 예옥이는 흑흑 울고 잇엇다. 우는 얼굴에서 나는 옛날 예옥을 찾을수가 잇엇다.

淋疾の七義 內服最新藥

最新治療劑 カバーカバ錠
가바—가바

東京大皮膚性病科醫長 醫學博士 向井利一先生 創製
陸軍藥劑官 藤本淸太郎先生
醫學博士 岩切友志先生 實驗
醫學博士 木村嚴先生
醫學博士 遠藤益市先生 推奬

執拗한淋疾

執拗한淋疾은 心身共苦痛을주며 全生涯의苦悶中에 갓치는 悲哀로운 人生의慘敗者가될도 瞬間의性的過失이라하면 實로 慄然한것이라고 아니할수업다. 一旦淋疾에빠진슴때이것을 閃光的으로 治療를 못하지안흐면 遼遠한將來에 다시 求할수업는悲運을 後悔하게되는다.

世上에하고만흔 淋疾患者가 簇出함을 볼도이모도 治療의不完全과 治療에 게을리하는때문이다 이點에 만히考慮하고 硏究하야 急速度로 이悲慘事를 求할目的으로써 製劑한것이 新製劑カバーカバ錠이다. 巷間에서 販賣하는 淋疾藥과는 比較服用하야 自信의 特徵이잇서 가장自信을 가지고잇다.

特徵內容

一、本劑에는 南洋産カバーカバ劑의 治淋鎭定의 主要成分을 濃縮主劑로하고 더욱이 治淋高貴藥七種을 化學的으로 配合하야 卓越한治療效果를 完備햇다
二、淋疾의苦悶을 極히迅速하게 消退식힌다
三、尿道粘膜에對하야 特殊한局所麻痺的 鎭靜作用을주고 排尿時에疼痛知覺을 輕減하며 溷濁尿를 淸淨케한다
四、本劑에는 健胃劑四種을 合理的으로 綜合하고 決定的으로 健胃性을 保存한고로 消淋藥服用할때 併合하는胃腸障害를 完全히 補足하는特徵이잇다.
五、本劑는從來의 不消化性カプセル入을廢止하고 一般이 服用하기쉬웁게하고저 糖衣球錠으로 하얏다.

【適應症】急性淋疾、慢性淋疾、淋濁、膀胱炎、淋毒性關節炎、其他花柳病性疾患

五〇錠入 二圓
一〇〇錠入 三圓五十錢
二〇〇錠入 大

病院用 五〇〇錠 一〇〇〇錠

◎カバーカバ는全國藥店에잇슴 カバーカバ라指示하고 萬一品切이때는 直接發賣元으로 振替도는代金引換으로 注文하면 折送한다 (前金注文은 送料不要郵券代用도可)

代理店 京城府本町 山岸天佑堂
製藥所 大阪 カバーカバ藥化學研究所

☆各地의 有名藥房에잇슴
藥을살때에 カバーカバ라고 指定하시오

樺太廳官營 海狗腎

明治四十四年日、英、米、露四個國의條約에幕한조 世界에唯一한구! 堂々한實彈的眞品! 百發百中은이로두고하는말

老少를勿論하고 陽氣업서恨歎하시는분이여 貴下를爲하야補精腎氣强壯에 神奇神秘한 天惠的靈効를가진樺太廳官營捕獲眞品海狗腎이到着하얏숨니다 求服을願하시는분은內容說明書請求하시면無料進呈함

新品到着

發賣元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朝鮮釜山府草梁町 電話一、一八二番 振替釜山七九二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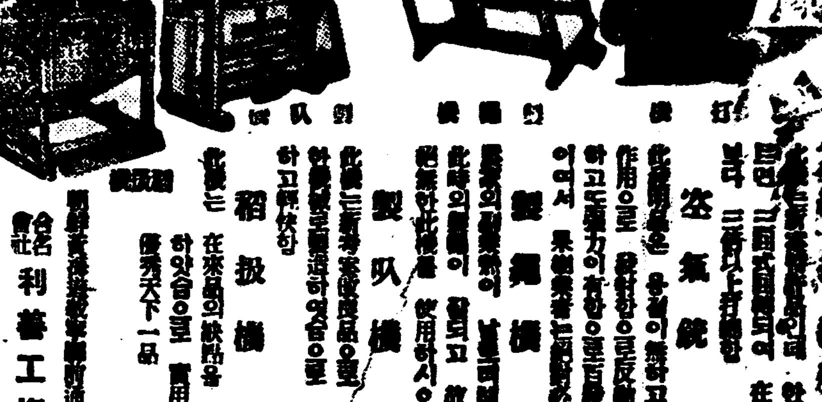
李先根小兒科醫院
京城府壽松町二六(安國町四街里)
院長 李先根
副院長 龐德興
電話光③二〇〇八番
溫水暖房 各獨房 入院隨意

色白
色黒き方ニキビソバカス吹出物シミ赤顔油顔で他藥効なく困る方あれこれ迷はず今スグ容態記し御手紙下さい。眞から色白く美しくキメ本位の最良藥をお知らせす
和歌山市新内通の一 湯院研究所

小資本大成功

生徒募集
(晝夜) 京城實踐簿記學院
(規則送呈) 京城府太平通大漢門横入(電本局七六一番)
◇簿記珠算科。タイピスト科。入學隨時 ◇短期修業官廳銀行會社商店就職斡旋

世界的發明空氣銃新案特許
特許出願中 米國專賣
空氣銃 製糸機 製綿機 稻扱機
合名會社 利善工業 電話一〇九 振替京城一四七六六



大邱勢發展座談會

時日 一月十五日午後六時
場所 於 大邱琴湖館
主催 本社大邱支局

出席者氏名

◇來賓側……洪雲楨、徐萬甫、李鍾完、柳蓋植、李孝祥、朱德根、朱秉煥、裵[illegible]基、許智、金成國醫師氏
◇支局側……支局長 張仁煥、記者 崔昌燮、李東雨

十二萬의生命이 깃드리고잇는 大邱는 四圍의情勢와 近代人의 都市集中熱에따러서 每年膨脹되는人口는 郊外로郊外로 急激한進出을보이고잇다 이事實을보면 곳數十萬의 大大邱가實現될것은 必然的趨勢로서 그發展의 렐포는 實로 急速度의 一路를 것고잇다 이平面的發展即 量의發展이 우리生活에 如何한 影響을 줄것이며 또한 그發展에 正比例하야 大邱府民의生活이 潤澤해질것인가 우리는 飛躍의 前夜를當하여 모든 機關에 對한 再吟味와 再檢討와 覺悟準備가 잇서야되겟기에 本報大邱支局은 大邱有志諸氏를 招請하여 『大邱에서 잇서야할것, 업서야할것, 끈처야할것』의 主題를 걸어 一夕의 座談會를 열기로 하엿다.

張支局長…(前略)오늘은 次回의 푸란에든 專門的座談會에對한 總論的, 或은序論的인 座談會를 하고저하니 여러분이 平素에關心을가지신 大邱府를爲하야 잇서야될것 업서야될것 끈처야될것의 主旨하에 말슴을 들려주시기바랍니다

藥令問題

洪雲楨(藥材委託業) 三大新聞이 잇슴에부터 이런모임이 잇기를期待햇습니다마는 今番에貴報가 우리積望을 實現해주서서感謝합니다 大邱藥令市는 藥材千若種中 千餘種이 南朝鮮地에서 産出되니 大邱는 그中心地가될뿐만아니라 全朝鮮七場所令市中 第一歷史가길고 規模가큼에 不拘하고 近年그 發展이 多少沈滯되고잇습니다 이令市는 藥業에從事하는 者에만 關係가 잇는것이아니라 大邱商業界에 廣汎하게 利害가잇는것이니 우리는 그不振하는理由를 究明하야 對策을 세워야되겟습니다

一、令市場所가 狹窄하야 外來客이 店舖를 불통所가업는것과
二、度量慣習에對한 外來客의不安心

이두點에 不振의理由가 잇는줄압니다 우리當事者로서 特히留意해야될것은 度量慣習에關한것인데 現今使用하고잇는 擧秤에對한不便과 이로因한外來客의不安心은 우리大邱의큰損失이니 坐秤使用이絶對로必要한것이며 場所는 府의施設로하야 外來客에 店舖無料貸與를하는것이 조흘듯합니다

楊來薰(漢藥業組合長) 大邱令市의繁榮은 外來客의 誘致에잇는것인데 우리는 모든不便과缺陷을 自覺하고 全朝鮮藥令의王座에잇는 職責을履行하는 우리가 犧牲하여라도 外來客本位로 하겟습니다 또한府當局에서도 府勢發展을爲해서 藥令市의體面을 維持할만치 令市街, 街燈設立等, 街路裝飾을 해주기바랍니다. 以外에 中介人問題입니다. 그前에는 中介人의 數爻가 만허서 여러가지로 外來客에 未安하게되얏슴이 잇서서 至今도 그數爻를 制限하고 또그人格도 參酌하여 認可하기로되여잇습니다. 將來에는 中介人組合이 되면 便利하겟습니다마는 令市는 短期的이여서 主로 副業으로되는 關係上 그組合實現에 만흔支障이됩니다.

工業問題

李鍾完(産組理事) 大邱의 工業은 朝鮮四大都市에比하야 너무나 幼稚합니다 大邱에는 事業家가 업서서 工業이 不振하다 하는사람이 만습니다마는 그實은 工業指導機關이 업서서 工業에 關한 知識이 업고 技術者가업서 企業家가 進出를 하지안는現狀입니다 全鮮을 통처노코 京城中央試驗所와 平壤道立工業試驗所의 二個所만으로 朝鮮工業의 隆盛을 期한다함은 無謀에가까운 것입니다 染織業의 現狀을 一瞥하면 朝鮮內織物消費高年一億九百萬圓에 比하야 生産高는 不過三千五百萬圓이며 大

寫眞은 座談會場

邱府 一國의 年産 六十萬圓이니 棉花 蠶繭의 主産地인 慶北道로서 織物界의 前途는 洋洋한것입니다 무엇보다도 大邱工業振興의急先務는 工業試驗所의 設置입니다 以外에 製品의統一과 品質의向上을 期하야 對外信用을 博하기爲하야 織物檢査施行令을 道令으로 發布 하엿스면 합니다 以外에 切實히 느끼는것은 織機更新인데 近來消費者의 傾向을보면 棉織物에서 絹織物或人造絹으로 推移하는데 이에따라 織造機도 更新을 해야하겟스나 平織機一臺百五十圓 紋織機一臺四百五十圓이라는 巨金을要하니 小規模의企業者로서는 購入이 困難하니 補助金下付나 또는 低利資金融通에依하야 中小工業家의 發展促進해야 될줄로 압니다

副業問題

徐萬甫(鮮光副業組合長) 副業은 우리의生活을 立體化시키는것으로 생각합니다. 勞働力을 合理化하며 浪費의期會를 防止하는等 直接生産收益以外의收穫이잇슬것이니 우리들이 等閑視해온 副業을 徹底奬勵할 必要를 느끼겟습니다 道內主要 副産物은 가마니 藁子紋(年産三十萬圓) 麥材(十六萬圓) 스립퍼(十萬圓)等이나 스립퍼以外의 副業은 모다沈滯狀態에잇는데 이副業의振作은 當局의助成과 社會의聲援과 또한經營者의 信念과努力이 絶對必要할것입니다 特히 注意해야할것은 都市와 農村과의 特異性을 發見하야 그 地方環境에 適合한 副業을 奬勵해야 하는데 過去의經驗으로보아 初期에잇서서는 都會가成績이 나흐나 持續性이업서 結局조치못한成績을 내게됩니다 그理由는 日常生活에 좃들려서 金錢으로 即時交換할수잇는物品의 製造以外는 不過합니다 그러나 都市에서 副業指導하는 것은 從業者의 一個月間의生活保障은 해주어야 되다는것을 이저서는 안될것입니다 말슴이 지리한것 갓습니다마는 끄트로 當局이 너무나 副業奬勵에 沒理解하다는것입니다 大邱十二萬府民中 無職業者가 一萬二千名인바 이救濟策인 大邱府副業奬勵를보면

副業紹介費 三千圓
授産費 一千八百圓

으로 以上四千八百圓이 一萬二千名의無職者에게對한 就職或은 授産費用이니 一年間의 府尹한사람의 交際費五千圓보다도 小額입니다(笑聲)이로보아서 얼마나 當局이 授産事業을 等閑視한다는것을 알겟습니다

司會 그러면 大邱府에는 어떤 種類의 副業이 必要할가요

徐 製帽業이 가장 有望할줄 압니다 一年間 朝鮮內 麥藁帽輸移入이 百萬圓, 파나마帽가 五十萬圓의 巨額에 達하니 이 百五十萬圓은 우리의 婦女子손으로 生産할수 잇는것이니 副業이 업는 大邱等地에는 有望한 副業이될것입니다

危機의嶠南學校 維持策은如何?

李孝祥(嶠南學校敎諭) 嶠南學校는 十五年前에 創立되여 今日까지 中等敎育을 實行해오러로 지난昭和十年八月에 學校基地所有者가 學校撤去要求를하게되여 訴訟까지되엿다가 結局昭和十二年一月末日까지 移轉키로하고 和解되엿는데 그撤去期日이 不過十餘日이남엇슬뿐입니다 이非常時를契機로하야 昭和十年九月에는 校友會 뒤니어 後援會가 創立되여 特別有志들과함께 活動해주엇는結果 近間多少曙光이 빗칠듯하니 社會一般有志諸氏의 絶對聲援이 잇기를바랍니다

裵[illegible]基 後援會幹事인 許智氏 活動經過가 어떠합니까

許智(府議員) 저는 同會幹事는 日前에有故하야 辭任햇습니다마는 後援會長 金在煥氏말도 듯고 또風說을듯건대 現基地所有者도 近日에는 嶠南學校問題에 多少同情하여 그態度가 緩和되엿다는것을 들엇습니다.

司會 初等敎育에對하야

裵[illegible](府議員) 大邱府人口의比例로보아 每年學校學齡兒童一萬二千名에對하야 公私立初等學校 總收容力은 不過七千名이니 남어지五千名이 그대로 文盲에 빠지게됩니다 이現狀을본 우리府議員들이 懇談苦鬪한結果 겨우南山町普校의增築과 一校二十四學級의 學級增設을 보게되엿습니다마는 이것만으로는 아직도 紅爐點雪에不過하는것이겟습니다 우리가前부터 生覺하고잇든것은 鄕校財産의運用問題인데 大邱鄕校財産의 收益으로 初等學校十二學級의 學校經營이 可能 합니다 現在도 一部敎育費의 補助는 해왓지마는 明德會이니 明倫學院 이니에 補助하는金額을 初等敎育費로 쓰게하면 文廟의 精神으로보아도 얼마나 有意한 일이겟습니까

司會 그러면 남어지 未就童의收容은 어이됩니까

鄭龍基(牧師) 機關廣設은 問題가 許諾지안는다면 第一有效한 方法은 東京 大阪等 都會地와 가티 夜間學校의實現에잇다고 봅니다(一同賛聲)

李申基 師範附屬學校가 設立되면 兒童收容力이 늘터인데 어 實現될넌지가

許智 今年內로 實現되답니다 마는 廣濶할 基地를 要하는關係로 府外에 될는지 府內에될는지 아직 疑問입니다

司會 朱德根氏 中等學校에入學되지못한 普校卒業生의指導敎育에關한이야기를 해주시요

朱德根(實修學院長) 大邱府內에잇는 初等學校를 卒業하는兒童이 每年千餘名인데 그中六百名이 中等學校에 志願하엿다가 二百名이 入學되고 남어지 四百名이 入學되지못하기에 이四百名의指導를 目的으로 職業科에 編入하여 實業敎育을 始作하엿든바 意外의事實을 發見햇습니다 即府內兒童을 目標로햇든것이 郡部에서 志願하는兒童數가 全數의 三分之二나됩니다 그原因을알어보니 農村學校의 職業科 偏重敎育이 드디어 中等學校入學率을 低下케한原因이되는듯합니다 이郡部에서 온兒童의 大部分이 中等學校에入學코저하는慾望을 가진는故로 自然一種의準備敎育을 시키게됩니다

朱秉煥(府議員) 現在몃名이나 收容하고 잇습니까

朱德根 現在百二十名입니다

司會 施設이不足하여 그럼합니다 더收容할수업습니까

朱德根 그런것이아닙니다 施設은 그以上收容할수잇습니다마는 當局이 商業的이아닌가하는疑惑을 가지고 여러가지로制限을하는 關係입니다 人員이制限되엿기때문에 以上募集할수가업습니다

裵[illegible]基 當局이 實的으로 如何할가 [illegible]하는것이겟지요

[illegible]는 現今實問題 [illegible]를 要求합니다 [illegible]가 만흔곳에서도 精光敎育이 必要하겟더구나 中等學校가不足한 大邱에잇서서 準備學校 實修學校等 精光敎育의 中間機關이 絶對必要합니다

徐萬甫 近來初等學校와 職業[illegible]를 보니 實修學校는 [illegible]를 實施하여 여러가지弊害가 만키니와 都市學校는 이와正反對로 進學準備敎育을 實施하기때문에 兒童의 保健에 重大한影響이 잇는것이니 學校當局者의 反省이 잇기를 바랍니다

電氣問題

司會 電氣問題에對한 여러분의意見을……

朱秉煥 電氣會社合同本社誘致問題는 어이되엿는가요

李申基 各地에서 誘致運動을하게되면 最後斷案은 釜山이되지안을가요 敎育 司法機關은 大邱이지마는 交通 遞信機關은 釜山이 大邱보다 上位에잇스니 電氣의本社는 釜山으로落着될것갓습니다

朱秉煥 本社를誘致함으로써 府民이 얼마마한利益을밧겟습니가

李申基 發電所가大邱에잇스니 電氣料金은 本社位置如何에 別影響이 업슬것입니다마는 큰 살림의 從業員을가진 會社인만큼 大邱府의 利害問題는 큰것입니다

朱秉煥 한대大興電氣會社가 저다지 大會社가되기는 全혀大邱府民의힘이엿는데 同會社는 獨點事業의 權益을 방패로 大都市中 第一비싼料金을 바들뿐아니라 近來에와서는 會社指定電球以外의 電球는破損又는强奪하여 押收하는等 一般이侮辱을받는일이 許多합니다

金成國(醫師) 그뿐이 아니라 말이낫스니 말이지 電球調査한다 稱하고 婦女들이잇는 房안에 無斷侵入을하는等 言語道斷의 行動을합니다그려

洪雲楨 電氣會社말로는 盜電하는 사람이 만타하나 우리가 볼때면 電氣會社가 우리 府民에게 盜電을하는것갓습니다 왜냐하면 指定電球라하는것이 다른 會社의 電球에 比하야 電光이 不足한것이 完然하며 메-터機의 裝置를 巧妙히하여 다른 電球를 使用하면 即時 停電이되도록 햇노앗습니다.

李根夏 내가 上西町 某家에서 본 經驗인데 電氣計量機의 볼드檢査를 會社員立會下에 해보니 九十五以上 百볼드의 電力을 가저야할것이 九十一乃至 九十二볼드밧게 가지지 안헛스니 電光이 弱할것은 必然한것이니 이것은 얼마나 大會社로서 卑劣한일이아닙니까

裵[illegible]基 何如間 大興電氣는 大邱府民의손에서 커진것이니 京電의 例에따라 府財政에 寄附나함이 電氣會社로서 할일이지

鄭龍基 무엇보다도 南山町가튼 어두운道路에 街燈이나 켜달라하지요, 何如든 大興電氣會社로서는 만히 反省하여야될 것입니다

醫療問題

司會 醫師會와 輕費醫院間의衝突은 어이되엿지요

鄭龍基 現醫師會指定料金은 府民의生活를 標準하여보면 細民層으로서는 到底히 近代醫術의 惠澤을 바들수업슬만치 高價의것입니다 어不幸한 일이지마는 宗敎家의 立場에서 輕費醫院을 創設한것입니다마는 醫師會에서는 大衆的要求를 無視하고 우리 輕費醫院을 撲滅하려는 競爭의 敵이라하야 撲滅하려고들엇습니다 내가經營하는것이라해서 이런말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京城에도 實費醫院이잇고 [illegible]가 府立으로도 [illegible] 低廉한料金[illegible] 醫療機關이 絶對로 必要한것은 事實입니다

朱秉煥 醫師會指定料金과 輕費醫院에서 밧는料金과는 얼마나差가잇습니가

鄭龍基 三分之一乃至 二分之一 以下입니다

金顯敎(三光醫院長) 輕費醫院의 鄭先生과는 나個人으로는 매우親한터이고 또先生의 思想과人格은 崇拜하지만 醫師會의立場으로본다면 그醫院의標榜하는名義가 商業的競爭을意味하는것 가태서 氣分이조치못하다는것입니다 醫師는事實에잇서서 社會의誤解를밧는模樣인데 一般이 生覺하기는 醫師는高率의料金을 바더서 私腹을채워오는줄만아는 것입니다마는 醫師도家族이잇스니 그生活를保障하여가자면 自然그러케되는것입니다

金成國(順天醫院長) 내가醫師니가 내말을誤解할사람이 잇을지몰으나 醫師의立場을 떠나서라도 一般이조터 醫學에對한理解가잇어야될줄압니다 醫學觀察이必要하지요 醫術에對한常識이업스니가 醫生의 認可도업는 藥種商或은 乾材局가튼데서 患者를 診斷도하고 劑藥도하고잇습니다 이우에더 危險한일이 어대잇겟습니가 傳染病가튼것도 이러한理由에서 問題가되는줄압니다

朱秉煥 藥種商에서 診察도하고 處方도 한다는것은 經費醫院과 關連되는 問題인줄압니다 病院에갈돈이업스니 低廉한 乾材局에가겟지요

金顯敎 傳染病에잇서서는 府立回生病院의施設을 充分히하고 一般이安心하도록 宣傳할도必要합니다 前例로보아 回生病院에는 入院만하면 死亡하는줄만 一般이 알어왓기때문에 傳染病者가나면 隱匿하는것입니다 現在는 專屬醫師가잇고 하니 安心하고 入院할수잇스나 當局者로서는 一層 施設에 留意하기를 바라는바입니다

司會 大邱商工業界에 重大한影響을 주는뿐아니라 重量商品을取扱하는 商人의 死活問題가되여잇는 [illegible]合同問題에 對하여 말슴할 姜[illegible]雲氏가 參席지안허 遺憾이올시다 이問題는 다음 紙上으로 돌리기로하고 끄트로 우리主催者를 攻擊할 言論界에 對한 所望을 말슴하여주십시요

裵[illegible]基 貴報는 中央新聞이니까 地方의要求만을 드를수는 업겟지요마는 大邱地方가튼 大都市의 地方記事를 만히取扱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大邱에서는 言論界가서로 反目狀態에잇는것가튼데 그리지말고 서로提携하여 大邱의輿論을 指導해갈 强力한 言論界의 團結이 必要한줄압니다

鄭龍基 營利爲主의 經營과 迎合主義를 排擊하며 社會性을 띈 輿論機關이되기를 바랍니다

李鍾完 社會에미칠影響을 考慮하여 愼重히 正確한報道를하기바랍니다

司會 感謝합니다 잘硏究하겟습니다 此後를期待하십시요……(끗)

群山支局主催 讀者慰安映畫

【群山】 본보군산지국에서는 신춘을당하야 일반독자에게 다소간이라도 위안을드리려고 여러가지로 생각하여오든중 작년여름에 본사에서 우리학계에 이름노픈 동식물(動植物)등 박물학자를 비롯하야 의학자(醫學者)며 역사가(歷史家)들의 삼십여명을 망라하여 조선의 성산(聖山)인 백두산(白頭山)을 탐험한 실지의사진을 본사사진반으로하여금 촬영한 영화(映畫)와 그외동서양에서 유명한다수의사진을 오는 이십칠일에 군산공회당(公會堂)에서 상연하여 독자들을위안한다는데 금번의사진이야말로 두번다시볼수업는 명화이니만큼 흔치안케 잇기를바란다고 한다

女性 二月号 近日發賣 特輯号

定價二十錢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 五八七八

女性과舊正風俗 車相瓚

法律로본女子貞操 尹[illegible]上
法律上에나타난女子의貞操! 이것은 人生生活에가장重要하기는하지마는 우리가理解하기어려운問題입니다 이論文은 現代法律과貞操에關聯된 누구나 알어두어야할것으로 大論文입니다……

女性과스케이팅 鄭保羅

路傍草
△密月의新郎新婦——李敬姬
△愛情의黃昏章——姜鷺鄕
△조고만奇蹟——張文卿
△歸鄕——李應淑

音樂鑑賞法——金管

實話 除夜——崔연분

詩
靜物……李源朝
테니스코-트……朱永涉
除夜……玄極野
午後세시……林春吉

◆漫文漫畫 그네 연석돌이의 스케이링……林鴻恩

우리學校자랑 貞信女校特色

家庭太平記 李克魯氏家庭風景
社會와家庭! 家庭과社會! 이는 어느곳이나 떠날수업는 것입니다 그러나社會냐? 家庭이냐? 하고 質問을하면 그때의대답은 또한 一言으로 끈어 말하기어렵습니다 그러나 李克魯氏의 家庭은 太平합니다 그러나 社會를 爲해 努力하는 男便을 理解합니다

新聞兩面大 四色刷極彩色 八道江山 옷말판 無代添附

△女性界消息 △女性揭示板 △藝苑散步

新女性再吟味
朝鮮新女性論 咸大勳
百貨店의新女性——朴周燮
結婚에나타난新女性 洪鍾仁
新女性의進路——沈恩淑
醫學上으로본新女性 鄭權陽

그夫人의一生 申鼎言

中國社交場의名物料理——王信愛

●文人에게設問●
一、女子에게 達變한일
二、夫人이 劉愛한때
三、夫婦間倦怠期에는
朴泰遠 嚴興燮 安懷南 徐光霽 李源朝 韓雪野 李孝石 朴致祐 金管 李鍾模

女性과衣服美 任晳宰

畫報…
懸賞問題 자미있는 女性二月号에있소

男兒通學服……任貞爀

料理와食慾……李珏卿

저風俗을사랑하자 李殷相

공드隨筆
우산——張德祚
종달새——洪九
茶와나——李秉珏
발——鄭順愛

表紙——安夕影
扉畫——鄭玄雄

二月의創作
短篇小說 어둠……姜敬愛
短篇小說 땡볕……金裕貞
長篇小說 안해……安夕影
短篇小說 殺妻者……七亭生

平安北道女性의特質 白鐵
平安北道女性의特質은 어테가잇나? 여기에 筆者는 一言으로 이러케 對答하엿다 「素朴한田園의美라」고 말하여 橫縱으로 그特質을 솜솜히 들두구나 그人情風俗을 알려는이의 글이라

水標町 中央館
二十四日より二十五日まで 浮氣はその日の出來心 リチャード・ディクス氏主演 惡魔の笑顔 黑髮峠 每日晝夜三回興行

一月廿四日부터三日間 每日晝夜二回公演 大衆料金 朝鮮映畫史上의大金字塔 洪吉童傳 後篇 京城撮影所作品 原作脚色 尹白南 東日、大每 國際뉴스 上往十里町 光武劇場

二十日より九日間 晝夜三回 PCL入江プロ合同作 入江たか子主演 ▲女人哀愁 佛フラッグ超特作 シモーヌ・シモン ジャン・ピエール・オーモン主演 ▲みどりの園 東日、大每 國際ニュース 大人五〇 學生小人三〇 最新式 溫風暖房完備 ワカゲキ

二十一日낮부터 劇團靑春座公演第四週特別週間 林仙圭作 悲劇 「남자없는자식들」 四幕五場 喜劇 「深深山村의白도라지」 一幕 南宮春作 特別後援 李雲芳作 『漢江흘은푸르르것만』 三幕 林仙圭作 『잊지못할사람들』 二幕 東洋劇場

廿日封切(七日間) 每日三回 豪華特別大興行 京城撮影所超特作映畫(日本版) 原作 李泰俊先生 脚色監督 羅雲奎 撮影編輯 李明雨 朝鮮語全發聲 五夢女 主演 盧載信、尹逢春、金海一 ◆M、G、M、空前의超豪華版 巨星지-그펠드 ◆RKO라듸오社超特作 一對二 團成社